

깊은 불황... 어두운 그림자들

# 서민 주택 경매 물건 ↑

광주·전남 지난달 542건 ... 1년 전보다 64% 늘어

고금리·고물가 탓... 가계 빚 '눈덩이'

경기침체와 금리 및 물가상승 등이 맞물리면서 광주·전남의 서민 주택이 대거 경매로 내몰리고 있다.

4일 경매전문업체인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광주·전남에서 경매에 부쳐진 아파트는 542건에 달한다.

이는 1년 전인 지난해 8월(330건)에 비해 64.2%(212건) 늘어난 것으로, 전국 주택경매 건수(5천31건)의 10.8% 수준이다.

이처럼 주택경매가 급증한 것은 올 들어 대출 금리와 물가가 가파르게 치솟으면서 서민들의 '이자 공포'가 심화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고물가와 금리급등에 따른 이자부담 증가로 '빚더미'에 나앉은 서민들이 줄을 잇고 있는 것이다.

실제 광주·전남은 시중은행의 주택대출금리가 1년 전 평균 6.13%에서 최소 0.62% 이상 치솟는 등 이자부담이 커지고 있다. 1년 전 1억원을 대출받은 경우 당시 연간 이자(613만원)에 추가로 62만원 가량의 이자를 더 내고 있는

셈이다.

지역 서민들의 금융권 부채도 눈덩이 처럼 불어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6월 말 현재 광주 지역의 총 가계대출은 6조7천499억원으로 1년새 9.9%(6천80억원) 늘었다. 또 이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은 3조9천414억원으로 1년 전보다 9.5%(3천426억원) 증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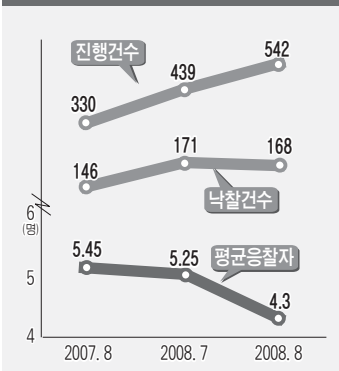
전남도 6월 현재 가계대출이 4조1천432억원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6월에 비해 4.8%(1천906억원) 늘어난 것으로, '이자 공포'에 떠는 서민들이 꾸준히 늘고 있다.

반면 광주·전남은 경매 물건을 늘었지만 낙찰률은 크게 떨어졌다. 지난달 광주 아파트 경매물건의 낙찰률은 40.9%로 전월(47.8%)에 비해 6.9%포인트 떨어졌다.

전남도 아파트 낙찰률이 7월 37.3%에서 28%까지 낮아지는 등 집값 등 부동산가격 하락으로 인한 경매 회피 현상이 뚜렷했다.

이같은 상황은 전국의 경우도 비슷하다. 지난달 전국의 아파트 경매 건수는 총 5천31건으로 전월

광주·전남 지역 아파트 경매 동향



인 지난 7월(3천684건)에 비해 36.6%(1천347건)나 늘었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주거용 부동산 경매물건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금리 인상과 경기침체 등으로 거래시장이 침체될 반면 대출금 만기 상환 압박을 받는 주택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지지옥션 강은 팀장은 "최근 광주·전남 등의 집값이 하락세를 지속하면서 금융권에서 채권회수의 강도를 높여 시간적 유예를 주지 않고 곧바로 경매로 넘기는 일이 많아졌다"며 "고물가와 고금리의 여파로 가계사정이 어려워진 서민들의 삶의 터전이 흔들리고 있다"고 말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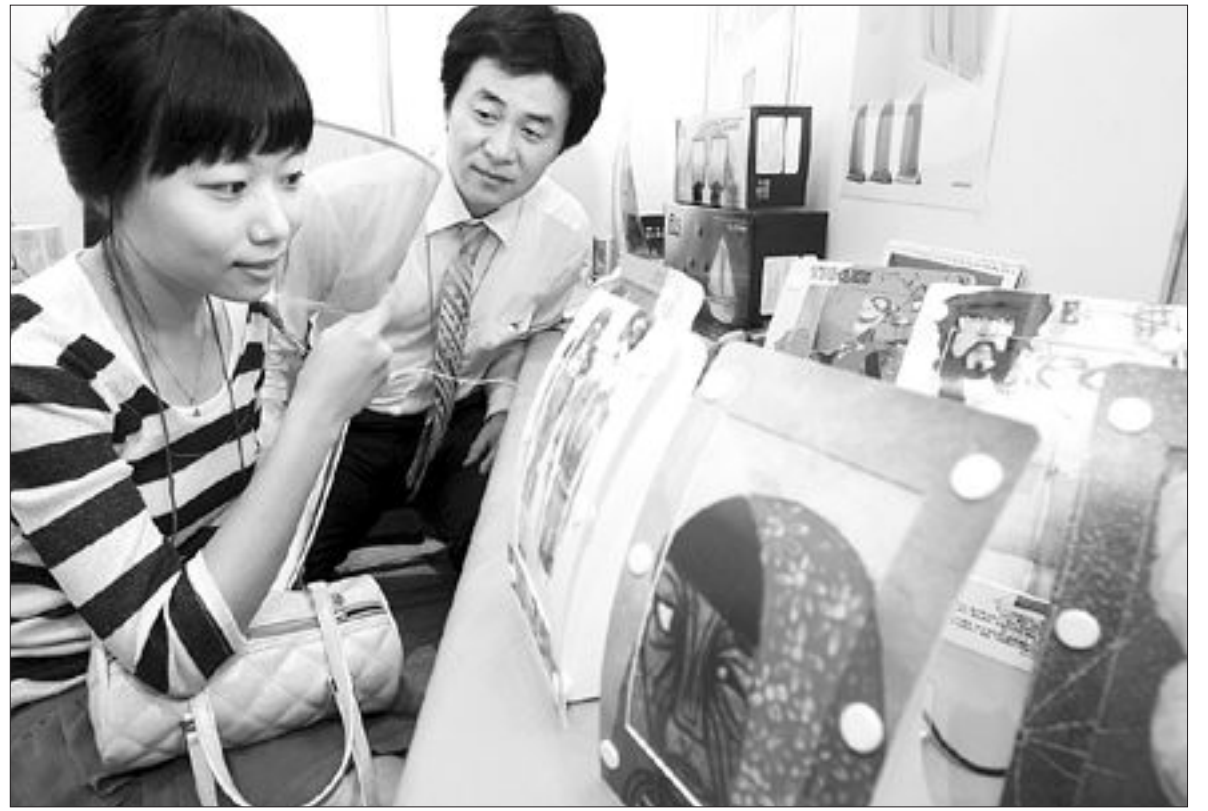
## 농협 추석맞이 '직거래 장터' 지역 34곳 개설

농협전남본부(본부장 이덕수)는 추석을 맞아 광주·전남 지역에 직거래장터를 개설한다고 4일 밝혔다.

직거래장터는 우수 농수축산물을 중간유통단계를 거치지 않고 전남 산지에서 직송해 판매하며, 광주 2곳, 전남 32곳 등 총 34곳에 개설돼 5일부터 10일까지 운영된다.

광주는 서구 풍암동 금호지구 마재공원, 동구 서석동 KT광장 등 2곳이며, 전남은 22개 시·군지역에 분산·개설된다. 직거래 장터에서는 우수 농수축산물이 시중 가격보다 10~20% 싸게 판매된다.

조영조 전남농협 부분부장은 "예년보다 이른 추석으로 인해 농산물 수급에 어려움이 있지만 농민들이 정성껏 가꾼 농산물이 제값에 판매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종태기자 jtleee@kwangju.co.kr



'필름에서 음악이 나오네'

4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선물용품 박람회인 '서울 기프트쇼' 전시장을 찾은 한 고객이 팬출터형 필름 스피커를 통해 음악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 중소, 대기업 부당행위 적극 대처

당국에 관련제도 개선 질의 ... 입법 촉구도

중소기업들이 대기업의 부당행위에 관련제도 개선을 위해 당국에 질의를 하거나 국회에 입법을 촉구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중소기업중앙회는 대기업인 석유화학업체가 가격을 알려주지 않은 채 원자재를 중소기업에 먼저 공급한 후 다음달에 가격을 통보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관행을 문제 삼아 최근 위법 여부를

국세청에 질의했다. 대기업으로부터 원자재인 아스팔트와 합성수지를 받아 제품을 만드는 아스콘과 플라스틱제조 중소기업들은 사전에 원자재 가격의 변동 여부를 알 수 없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원자재를 받아 제품을 만들어 이미 판매한 상태이기 때문에 대기업이 다음달에 해당 물량의 가격을 올릴 경우 이를 판매가에 반영할 수가 없어

손해를 고스란히 봐야 하기 때문이다.

관련 중소기업들은 원자재 가격을 사전에 알려주는 '가격예시제'를 시행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대기업들이 사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을 문제 삼은 것.

이와 함께 납품단가 현실화를 주장하며 올해 초 납품중단을 벌였던 주물 중소기업들 중심으로 납품단가 연동제의 입법 운동이 진행 중이다. /연합뉴스

## 재건축 후분양제 10월부터 없앤다

10월부터는 재건축 아파트 후분양제가 폐지된다.

국토해양부는 8·21대책에서 발표한 재건축 일반공급분 후분양제 폐지를 반영한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 5일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할 때 일반분양을 공정률 80% 이후에 하도록 한 후분양제는 참여정부의 재건축 5대 규제중 하나로 2003년 7월 도입됐다.

후분양제는 재건축 조합의 수익성을 떨어뜨려 투기거래 수요를 줄이려는 목적으로 도입됐으나 분양 시점이 늦어지면 자금비용 등이 반영돼 분양가를 높인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의견수렴, 법제처 심사를 거쳐 10월중 시행될 예정으로 시행일 현재 분양되지 않은 모든 단지가 개정 규칙의 적용을 받는다. /연합뉴스

## '일자리 창출' 기업 정책·금융 지원 우대

중기청 '1사 1인 채용 캠페인'

중소기업청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중소기업에 정책지원 대상 선정과 금융지원 등에 있어 우대하기로 했다.

중기청은 4일 열린 제7차 위기관리 대책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1사 1인 10% 채용확대 캠페인'의 세부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중기청에 따르면 100인 이상 기업은 10인 이상, 100인 미만 50인 이상 기업은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은 고용의 10% 이상 추가 고용할 경우 신용보증의 보증료율을 0.1~0.3%포

인트 인하고 운전자금의 보증한도를 산출할 때 기업에 보다 유리한 매출액 기준을 적용한다.

또한 연구개발, 수출,관료, 인력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을 선정할 경우 이들 고용창출 기업에 2~5점의 가점을 부가할 방침이다.

중소기업 창업도 지원해 10인 이상 고용을 창출하는 창업 중소기업에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을 주고 금리도 10인 고용시 1% 포인트 인하, 이후 추가 1인 고용시 0.05%포인트를 인하여 최대 2.0% 포인트 내리준다. /연합뉴스

## 안택수 信保이사장 來光



안택수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은 5일 지방 중소기업의 현황 파악을 위해 광주지역을 방문한다.

안 이사장은 이날 신보 호남영업본부 방문한 뒤 광주 평동공단에 디케이산업(주)에서 열리는 중소기업인들과의 대화에 참석하는 등 현장경영에 나선다. 안 이사장은 또 이날 지역 중소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해 향후 신보의 중소기업 지원정책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 지역 건보료 체납 205만 가구

5년새 2배 증가 ... '생계형 체납자' 14만 가구 달해

건강보험료를 체납해 건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세대가 208만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임두성 의원(한나라당)에 제출한 '급여제한 세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료 체납으로 208만 세대(390만명)가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적용이 제한된 세대는

5년 전인 지난 2003년 100만 세대(195만명)에서 지난해 208만 세대로 2배 증가했다.

이는 3개월 이상 보험료를 체납한 장기체납자가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같은 기간 건보료를 장기체납한 지역가입자는 2003년 156만 세대에서 지난해 205만 세대로 늘었다.

특히 건강보험이 제한된 직장가입자

입자 가운데 연소득이 1천~5천만 원인 경우가 76.2%로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지역가입자는 연소득 1천만원 미만인 79.4%를 차지해 건강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임 의원은 지적했다.

그러나 보험료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생계형 체납자를 대상으로 하는 결손처분을 받은 세대는 지난해 14만 세대로 급여제한 세대의 7% 수준에 그치는 실정이다. /연합뉴스

"자식들한테 바랄게 뭐 있나? 모두 건강하게 살아주면 그게 고마운거지!"

"요즘 효자가 별건가 그저 아무 탈없이 건강하게 살아주면 그게 효자지"

당신의 이 한마디가 자식들에게 힘이 되고 건강이 됩니다. 당신의 이 마음처럼 당신께서 늘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이 건강토 불고, 건강이 행복을 키워줍니다.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좋은 약을 만들게 합니다. 국제약품은 모두가 생명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가장 좋은 약은 사랑입니다.**

코멘타임 Q10 함유 종합영양제

국제-에이스 **큐텐**

비타민 A, C, E 및 보충  
- 코멘타임, 진신·수박·향토·영향·제1001, 녹차, 녹차  
- 녹차, 인삼과 과일, 약용  
- 생분말, 유산균, 유산균, 유산균, 유산균  
- 인삼, 인삼, 인삼, 인삼  
- 인삼, 인삼, 인삼, 인삼

가장 좋은 약은 사랑입니다  
**국제약품**  
http://www.kunicepharm.co.kr

아연의 보충  
\*야생산삼, 인삼, 인삼, 인삼